

SK하이닉스 첨단동화

토끼와 거북이



만약 이때,
거북이에게 SK하이닉스의
상생 정신*이

없었다면

있었다면

토끼가 깨지 않게
최대한 조용히 지나간다

뒤늦게 깨어나 화가난
토끼가 앞질러 가버린다

거북이는 패배하고
토끼는 악플에 시달린다

정정당한 경쟁을 위해
자고 있는 토끼를 깨운다

잠에서 깬 토끼가 깜짝 놀라
달리다 강을 만나 멈춘다

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넌다



고마운 토끼는
다시 거북이를 업고 달려
함께 우승한다

상생의 기술로
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

*SK하이닉스는 1000여 개의 협력사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